

[청산 히트맵(Liquidation Heatmap) 실전 매매 가이드]

1. 기본 원리 이해

- 청산(Liquidation)은 '강제 종료'를 의미
- 청산이 터지는 곳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폭발하며, 시장은 그 물량을 먹기 위해 움직이는 습성이 있음.
- 청산 발생 직후에는 급격한 되돌림(Rebound)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2.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

A. 롱 청산 (Long Liquidation) 구역

- 상황: 가격 하락 → 롱 포지션 강제 매도(Sell) 물량 폭탄 → 추가 하락
- 움직임: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꼬리를 그리며 무너짐 (청산 빔)
- 대응: "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"
- 매매법: 청산 라인 '하단'으로 갈수록 비중을 높여 '지정가 매수(Limit Buy)' 분할 진입
- 목표: 패닉 셀(Panic Sell) 물량을 최저점에서 받아 V자 반등 수익 실현

B. 숏 청산 (Short Liquidation) 구역

- 상황: 가격 상승 → 숏 포지션 강제 매수(Buy) 물량 폭발 → 추가 상승
- 움직임: 위쪽으로 강력하게 솟구침 (숏 스쿼즈)
- 대응: "오버슈팅(Over-shooting)에 던져라"
- 매매법: 청산 라인 '상단'으로 갈수록 비중을 높여 '지정가 매도(Limit Sell)' 분할 진입
- 목표: 강제 매수세로 인한 거품 가격에 매도 후, 제자리로 회귀할 때 수익 실현

3. 주문 방식 (시장가 vs 지정가)

- 결론: 청산 매매는 무조건 '지정가(Limit)'가 유리함.
- 이유 1 (가격): 청산 빔 발생 시 슬리피지가 심해 시장가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됨.
- 이유 2 (심리): 기계적인 반등 속도가 사람 손보다 빠름. 미리 걸어야만 꼬리(Wick)를 잡을 수 있음.
- 전략: Laddering (사다리 타기) 방식으로 가격대별 분산 주문 권장.

4. 자동 스위칭과 박스권 매매

- 일반 주문의 한계: 지정가 매수/매도를 동시에 걸어도, 수익 실현 후 즉시 반대 포지션으로 스위칭되지 않음.
- 해결책: '그리드 봇(Grid Trading Bot)' 활용.
- 설정: 하한가(롱 청산가) ~ 상한가(숏 청산가) 사이를 설정해 두면 24시간 자동 핑퐁 매매 가능.

5. 필수 주의사항 (Risk Management)

- 추세장 주의: 강력한 재료를 동반한 '진짜 추세'가 터질 경우 지정가 매매는 물타기가 되어 위험함.
- 손절(Stop Loss): 진입 라인에서 일정 퍼센트 이상 뚫리면 즉시 손절하는 '최종 방어선' 필수 설정.
- 데이터 유효성: 청산 히트맵은 실시간으로 변함. 한번 청산된 자리는 에너지가 소멸하므로 매일 업데이트 필요.